



원주마을이야기 Since 2002

제147호



2024년 11월호

연주황빛 감의 계절, 연주 엄목마을

연주 엄목마을의 가을은 불디뵈다. 듄직하게 펼쳐진 대둔산 능선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집집마다 깎아놓은 주황빛 꽃감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가을걷이로 하루 해가 짧은 엄목 사람들을 만났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요새 한창 감따서 꽃감말리기에 바쁜 김성원, 김종희 씨 부부

- 뱀비밥, 누기누가 잘 짓나 ... 8P
- 60세네, 두 번째 별밤극장 ... 9P
- 삶의풍경 명탄마을 박정애 이야기 ... 12P
- 우리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 2기 ... 16P



휘둘러 마을 한 바퀴

대둔산 정기 받은 마을에 감이 주렁주렁

운주면 소재지 도로변에서 양촌 방향으로 1km가량 가다 보면 나오는 엄목마을은 본래 엄목과 현동의 두 개의 자연마을이 합쳐진 것으로, 엄목은 엄나무가 많아서 '엄나무실', 완창마을에서 내려오는 내 가운데 여울이 있어서 '여울목'이라 불렸다. 앞으로는 대둔산을, 사이로는 장선천을 두고 펼쳐지는 엄목마을에는 42가구, 80여 명의 주민이 모여 살고 있다.

푸근한 인심을 맛보다

가을 햇볕으로 물든 엄목마을 어디서나 보이는 것이 감나무다. 여태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거의 다 수확되고 까치밥만 남은 나무 등을 따라 걷다가 커다란 창고 앞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다. 날이 좋아서 햇볕을 쬐러 나오셨나 물었더니, 어르신은 깨를 다 털고 잠시 쉬는 중이라고 했다. 엄목마을 토박이고 이곳 남자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다는 김병원(83) 어

르신은 집안이 대대로 감 농사를 지었다. 지금도 엄목마을에서 감나무를 가장 많이 키우는데, 무려 300접이나 된다.

“지금 감이 제철인데 한 번 맛봐야지. 저기 장대 있으니 그거 가져와서 직접 따먹어봐.”

병원 어르신이 알려주는 대로 쪽 익은 홍시를 따서 반으로 갈랐다. 그랬더니 어르신은 감의 속살만 봐도 어떤 게 달기만 하고, 어떤 게 짠 맛이 나는지 단번에 알아챈다. 어떻게 척 보기만 해도 아냐고 묻자 그는 “한평생 감만 보고 살았는데 당연히 알지.”라며 웃었다.

항상 붙어 다니는 최고의 단짝

달짝지근한 인심을 맛본 후 마을 외곽을 걷다가 또 다른 어르신과 그를 경호하는 것처럼 줄줄 따라다니는 강아지를 마주쳤다. 다가가 인사를 나뉘 보니 엄목마을 김임숙 이장의 어머니인 윤수영(92) 어르신이다. 임숙 이



덕장에서 건조 중인 곱감을 살펴보는 최상운 씨.

외지인들도 정에 이끌려 정착

장이 얼마 전 고산시장에서 데려왔다는 강아지 ‘호돌이’는 왕성한 호기심만큼 겁도 많다. 그런 호돌이가 유독 수영 어르신을 잘 따른다고 한다. 어르신이 한 발짝 땄 때마다 다리에 따라붙는 것은 물론이고 앞서 나가다가도 어르신 걸음이 늦어지면 얌전히 앉아 기다린다. 작은 소리 하나에도 쉽게 놀라는 호돌이가 편안히 앉아 쉬는 곳도 수영 어르신의 바로 옆자리다. 수영 어르신은 “나 심심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시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요즘 애 때문에 적적할 날이 하루도 없다. 산책할 때마다 짹짹 좇아다니는 게 귀엽다”고 웃으며 호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름다운 대둔산 풍경을 담은 집

사이 좋은 수영 어르신과 호돌이를 뒤로 하고 언덕길을 건다가 깨를 털고 있는 부부를 만났다. 2017년도부터 이곳에 집을 짓고 2022년도에 귀촌한 전귀홍(63), 임경희(63) 씨다. 부부의 초대를 받아 방문한 2층짜리 주택은 뒤로는 병풍 같은 산을, 앞으로는 장선천 넘어 대둔산을 두고 있다. 거실에 통창을 내어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게 이 집의 자랑거리다. 집의 구조와 내부 인테리어 모두 귀홍 씨가 고심한 결과물이다. 본업이 아닌데도 수준급 실력의 원천이 궁극하다고 했더니, 그는 “원래 인테리어, 도배, 타일 등 집수리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귀촌해서 살 집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었다”고 말했다.

‘집수리 부캐 학교 1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던 귀홍 씨는 교육 수료 후 꾸준히 집수리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좋아하는 일이라 재미있기도 하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말한 그는 최근에도 엄목마을 몇몇 가구의 전등, 문 경첩 수리 등을 도왔다.

상담 전문가로 일했던 경희 씨의 취미는 계절별 과일로 잼이나 청을 만드는 것이다. 봄에는 딸기잼, 가을과 겨울에는 생강과 청귤청을 담근다. 그는 집에 오는 손님에게 정성 어린 선물을 주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어느덧 부부가 엄목마을에 자리 잡은 지 2년 차, 아무런 연고도 없던 이곳에 안착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둘은 입을 모아 ‘따뜻한 정’이라고 말했다. “엄목마을은 충청도 경계인 곳이라서 예전부터 지역 간 교류가 많았다고 해요. 그 덕분인지 어느 곳보다 이 마을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누구든 반겨주시고 품어주시니 사람 살기 정말 좋은 마을이에요.”

엄목마을 사랑방 ‘육각정’

언덕을 내려와 마을 중앙으로 가는 길에 산책하던 이연례(95), 김옥순(90) 어르신을 마주쳤다. 오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다는 옥순 어르신은 “허리가 아파도 오늘 햇빛이 좋아서 운동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 어디인지 묻자, 연례 어르신이 “날 추울 때 아니면 마을회관보다 육각정에 더 자주 모인다”고 귀띔했다.

사방이 유리창이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육각정에 다다르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날 사랑방을 찾은 손님은 마을 인기쟁이 지영순(83), 운주면 옥배마을에서 이사 온 강신례(77) 어르신, 그리고 노인회장 김완채(77), 신수분(73) 어르신이다.

반갑게 맞아주는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침 댓바람부터 대문 두드린 친구들, 어제 김임숙 이장의 차를 타고 양촌시장에서 사 온 물건, 곧 있을 김장 소식까지 대화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특히 입담 좋은 영순 어르신이 말할 때마다 육각정 안이 깔깔 웃는 소리로 가득 찼다. 마침 불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임숙 이장까지 합류하니 분위기

는 더욱 유쾌해진다.

수분 어르신은 “남편이랑 점심 먹고 운동할 겸 마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꼭 육각정을 찾는다. 와서 아무도 없으면 우리끼리 앉아 있다가 가고, 누가 있으면 이렇게 재미있게 논다”고 말했다.


든든한 가족들이 지켜준 터전

시끌벅적한 육각정을 나와 마을 입구 쪽으로 향했더니 이전에는 아무도 없던 곳감 덕장 작업장에 누군가 있었다. 입구 바로 앞 집에서 사는 최상운(65) 씨다. 더 무르기 전에 수확한 감의 껍질을 깎아 꽃이에 거는 작업이 한창이다. 상운 씨는 단감을 말려 반건조 곳감인 두레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천장에서부터 그의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린 감꽃이를 보고 감탄하니, 그는 “지난해에 비하면 이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운 씨 말에 따르면 올해 감 농사는 폭염에 이은 수해 때문에 평탄치 못했다. 심지어 지난 7월에 있었던 폭우 때문에 그는 인명피해도 입을 뻔했지만, 반려견 ‘봉구’ 덕분에 큰일을 면할 수 있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자는데, 봉구가 막 밖에서 짹짹하고요. 약을 먹은 상태라 비몽사몽인데 봉구가 심하게 짹이니깐 결국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방 안으로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였죠.”

봉구 덕분에 살았다는 상운 씨는 이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형제들의 도움으로 작업장과 집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는 “넘친 물 때문에 집 담장도 무너지고 아주 쓸대밭이었다. 그런데 그런 나보다 더 심한 피해를 본 집이 많아서 면사무소에 도와달라고 말도 못 하고 거의 혼자서 보수했다”고 말했다. 항상 걸을 지키는 봉구와 든든한 형제들에게 고맙다는 상운 씨의 바람은 “앞으로는 별 탈 없이 농사지으면서 봉구랑 즐겁게 사는 것”이다.

알록달록 물든 산 아래 엄목마을의 가을은 이렇게 조용히 익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르게 품은 다정함이 주홍빛 감만큼이나 풍요로운 계절이다. 

깨 터는 전귀홍·임경희 부부, 나갈 준비하는 김병원 어르신, 윤수영 어르신과 반려견 호돌이, 이연례·김옥순 어르신.



지영순 어르신

엄목마을 소문난 7공주네

일은 많이 했어도
자식들 보며 버텨낸 세월

작년에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천천히 마을 길을 걷다 보니 하얀 육각정이 보인다. 육각정 앞, 파란 대문이 다래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마당에 실버카가 놓여있는 이곳은 지영순(83) 어르신의 집이다.

“다래가 아직은 덜 익었는데 좀 더 있으면 노랗게 익어. 그때 따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어.”

마당에 가지런히 놓인 대추도 보인다. 집 앞에 대추나무에서 따온 대추들을 손질한 상태다. 오늘 같은 마을에 사는 넷째 딸 주영에게 나눠줄 참이다.

“내가 7자매를 낳았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막내



를 내가 5대에 낳았어. 나중에 딸인 줄 알고 안 키우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예쁜 딸을 어떻게 그러냐 그러. 그래서 우리 집이 7공주가 된 거야. 딸들이 좋아. 집에도 자주 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편안하지. 자식들이 오면 집이 엄청 북적북적해 그런 낙으로 사는 거지.”

서울 사는 큰딸 나이가 70이 넘어서, 대전에 사는 막내딸 나이가 70이 넘어서. 일곱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영순 어르신은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엄목마을이 고향이야. 스물넷에 마을에서 우리 영감을 만나서 결혼했지. 시집오니깐 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애들 키우려고 그때부터 두부 장사를 시작했어. 운주는 충남이랑 가까워 양촌리라고 있는데 두부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팔았어. 그렇게 두부 팔아서 땅을 사고 딸기 농사를 영감이랑 지었지. 나도 남편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

살기 위해 두부를 팔았다는 영순 어르신은 “그래도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라 어떻게든 버텨내”라며 웃는다.

인상 좋은 영순 어르신은 웃음도 많다. 결혼 후 굶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싫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다.

“그래도 그런 세월이 야속할 만큼 자식들이 크고 다 시집가서 잘 사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사위들이 나한테 잘하는데, 특히 셋째랑 넷째 사위가 입담도 좋고 아주 웃겨. 항상 챙겨주는 딸네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작년 내 생일에는 고산미소 시장에서 소고기 100만원어치를 샀어. 우리 집 마당에서 다 같이 모여 구워 먹었는데,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어르신 집에는 가족사진이 크게 걸려있다. 단체복을 입고 일곱 명의 딸, 사위들과 찍은 사진, 손주들 사진, 분홍색 정장을 입은 어르신 독사진까지.

“나 팔순 잔치에 찍은 건데 내가 사위들 옷도 브랜드로 다 사줬어. 엄청 예쁘지? 내가 분홍 정장 입고 찍은 사진은 딸들이 대전으로 데려가서 찍은 거야. 잘 나와서 내 영정사진으로 쓰고 싶은데 딸들이 실물이랑 다르다고 안 된다네. 그래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진짜 좋아. 다음 주면 김장해야 하는데 가족이 모두 모여서 엄청 북적거리겠네(웃음).”



지영순 어르신 산수연 때 일곱 딸들과 함께. 딸들이 모두 시집 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낙이다.

매주 고산향교에서 한문 공부

김영중 어르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머리가 굳지 않아



겨울의 문턱에서 부쩍 선선해진 오전, 텃밭에서 마늘을 심고 있는 김영중(79) 어르신을 만났다.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크게 짓지는 않고, 먹을 만큼만 조금씩 하는 정도”라고 말한 영중 어르신은 어제부터 부지런히 쪼갠 씨마늘을 밧고랑에 뿌리고 흙으로 잘 덮었다. 텃밭의 반은 마늘을 심었고, 나머지에 심었던 고구마는 이미 수확했다. 가족들에게 나눠 주려고 정성스럽게 기른 고구마를 우리에게도 한 바구니 안겨주는데, 어르신의 넉넉한 마음씨 덕분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영중 어르신의 초대를 받아 방문한 집안으로 들어서자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봄이 시작되었으니, 크게 길하고 경사가 많이 생기기를 기원함)’이라는 글귀가 먼저 눈에 띄었다. 한눈에 봐도 수준급 실력인데, 아니나 다를까 40대부터 한자로 일기를 써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볼펜으로 쓰다가 최근에는 붓글씨로 기록하고 있다. 거실 탁자 주변에 놓인 책, 기록물, 서예 도구들에서 손때가 느껴진다. 군대 제대 후 16년 동안 이장으로 활동했던 영중 어르신은 젊은 시절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장선전을 가로질러 완창마을과 엄목마을을 연결하는, 현재의 마을 입구 쪽 다리를 놓는 큰 규모의 공사도 그 당시 진행됐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오랫동안 마을을 위해 힘써 온 영중 어르신은 엄목마을의 역사를 줄줄이 꿰고 있다. “엄목마을은 한국전쟁 때에도 전사자가 없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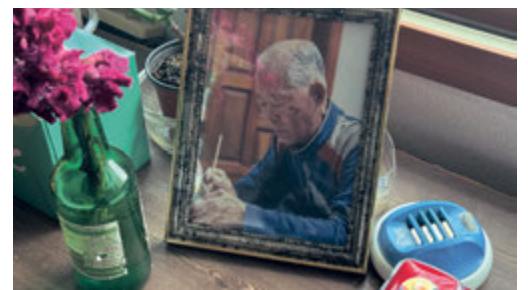
씨마늘을 심고 있는 김영중 어르신.

평화로운 마을이야. 7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리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큰 피해는 없었어. 마을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서 감나무든 밭이든 농사를 크게 하지는 않았거든.”

“84세대가 살았던 예전과 달리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덧붙인 그는 “그래도 다들 육각정에 모여서 담소 나누는 일은 여전하다”고 웃었다.

요즘 영중 어르신의 낙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고산향교에서 한문을 배우는 것이다. 국민학교 입학 전부터 천자문을 뎨 그는 지금까지 꾸준히 한문 공부를 이어오고 있다. 한문 실력이 뛰어난 덕분에 옛날부터 운주면에서 한문으로 글을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누구나 영중 어르신을 찾아가고는 했다.

이렇듯 이미 뛰어난 실력인데도 어르신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머리가 굳지 않는다”고 말한다. 겸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닦는 그의 모습을 통해 현명하게 나이 들어감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점심 먹고 매일 같이 산책하니 사이가 좋아

김완채·신수분 부부

건강하게 오래 살아
손자 대학가는 것도 봐야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엄목마을 사랑방인 육각정에서 단골손님인 김완채(77), 신수분(73) 어르신을 만났다. 점심을 먹은 뒤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육각정에서 놀다 가는 것이 부부의 일상이다. 이날 수분 어르신은 새벽부터 일어나 열무김치를 담그느라 바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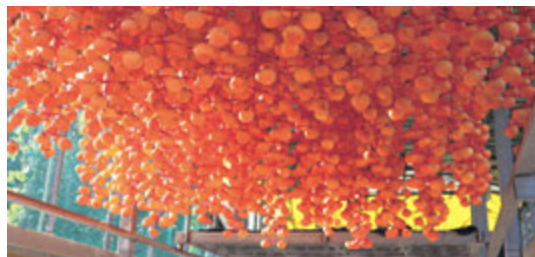
“풀 끊이고, 과일 갈고, 무 다듬느라 정신 없었지. 남편이 재료를 차례대로 가져다 준 덕분에 그나마 수월하게 했네. 양이 너무 많아서 김치치대느라 죽는 줄 알았어.”

김치를 다 담근 수분 어르신은 완채 어르신이 대봉시 따는 걸 도왔다. 집을 둘러싼 많은 감나무의 대부분은 팔고 가족끼리 먹을 것 서너 그루만 남겨뒀다고 한다.

완자골 끄트머리에 있는 부부의 집을 구경하다 보면 덕장의 꽃감들 다음으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명패가 눈에 띈다. 어려운 시절 8남매 중 장남 부부로서 형제들과 자식들을 보살피느라 애썼던 부부의 모습이 집안 곳곳에 남은 흔적들에서 연상된다. 완채 어르신이 받은 공로패도 많았는데, 군대 제대 후 11년 동안 이장을 세 번이나 맡아 일했기 때문이다. 육각정, 상수도, 마을회관, 농로, 가드레일 등 웬만한 시설은 이장이었던 그의 주도로 지어졌다.

수분 어르신 또한 남편 못지 않게 일을 많이 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딸기 농사가 시작됐을 때 작목반장을 맡은 완채 어르신과 함께 40년이 넘도록 딸기 농사를 지었다.

수분 어르신은 “예전에는 비닐도 없어서 지푸라기로 일일이 덮어서 딸기에 흙이 안 묻게 했다.



꽃감 덕장과 수분 어르신이 직접 담근 장들

딸기에 어찌다 흙이 묻으면 떼어내려고 입으로 후후 부느라 입이 아플 정도였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스물일곱, 스물셋에 결혼한 두 어르신의 만남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당시 완채 어르신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수분 어르신의 이모가 중매를 썼는데, 수분 어르신이 말하길 “우리 이모가 인물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내가 못생긴 줄 알고 안 만난다고 했다더라.”, 뒤이어 완채 어르신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예뻐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자 다들 웃음을 터트렸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부부 밑에서 큰 자식들도 정이 가득하다. 세 아들 모두 명절에 모일 때마다 서로 자기 각시가 예쁘다고 자랑할 정도로 금실이 좋다고 한다. “연을 맺은 지 오래된 며느리들이 처음 인사 왔을 때처럼 여전히 착하고 예쁘다”고 말한 수분 어르신은 1년에 김치를 15번이나 담그고, 정성스럽게 짠 들기름으로 ‘며느리 사랑’을 몸소 보여준다. 완채 어르신이 “세상에 이런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할 정도다. 그런 완채 어르신도 며느리들 생일에 꼬박꼬박 용돈과 덕담 챙기는 것을 보니, 내리 사랑은 부부의 공통점인 듯싶다.

올해 1월 수분 어르신의 무릎 수술 이후에는 손이 많이 가는 대부분의 농사를 정리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구내염이 자주 생기니 음식을 잘못 먹어서 고생이다. 그럴 때 병원에서 맞는 면역력 향상 주사보다도 더욱 힘이 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다.

수분 어르신은 “내가 입맛 없을 때 남편이 운전해서 삼례, 논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사먹고, 좋은 곳 가서 바람 쐬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웃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부부의 소망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제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보세요”라고 말한 초등학교 손자의 말처럼 여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공**

나무 많아 공기좋은 마을

김임숙 이장

날이 제법 선선해진 11월 5일 단풍 옷으로 갈아입은 대둔산 자락을 따라 운주 엄목마을을 찾았다. 다리를 건너 골목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감나무 앞에 마을회관이 보인다. 이곳에서 만난 김임숙(65) 이장은 스무살 무렵 시집을 간 후 타지에서 생활하다 2011년쯤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해 살고 있다. 그는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52가구, 80여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40, 원주민이 60퍼센트를 차지한다. 옛날에는 원주민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엄목마을은 엄나무 엄(嚴), 나무 목(木)자다. 이름처럼 마을에 엄나무가 많아서 '엄나무실'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집마다 옆에 한 그루씩은 있었다. 우리 마을은 끈끈한 편이다. 아이가 두 명 있는데 다문화 가정이다. 운주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충남 양촌으로 유치원 다니는 아이 한 명 있다. 대부분 70~80대가 많다.



1년에 한 번씩 같이 나들이를 하는게 끈끈한 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비법이라고 말하는 김임숙 이장.

엄목마을만의 자랑거리가 있나

우리 마을은 운주면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 주로 꽃감, 딸기, 상추 농사를 하는데 예전만큼 농사를 많이 하는 집은 없다. 옛날에는 벼농사, 보리농사, 녹두, 메주콩, 참깨 같은 거나 고추, 마늘 등 큰 농사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 동네 끝자락에는 완자골 300년이 넘는 우물이 있다. 이제는 우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칠펝굴이 엉켜 우물 벽도 무너진 상태지만 옛날에는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 먹었다. 역사가 깊은 우물이다.

엄목마을만의 끈끈한 정이 궁금하다

1년에 한 번씩 나들이를 간다. 꽃이 피면 꽃구경하고, 맛

있는 식당이 있으면 맛집 탐방을 하러 간다. 마을 기금이나 개인 부담으로 낸 비용으로 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 같다.

이장으로서 바람이나 소망은

뭐든지 우리 마을을 위한 일이면 보람을 크게 느낀다. 운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이 나오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챙겨주려고 노력한다. 마을 사람들끼리 불협화음 없고, 의견 다툼 없이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앞으로도 다음 이장 선거가 있기 전까지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 (공)

지금은 감 따서 깎기 바쁜 계절

김상원 씨

조용한 골목을 건다가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곳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붉은 지붕이 예쁜 집에서 감을 깎고 있는 김상원(65) 씨를 만났다. 집이 예쁘다고 말하자 그는 "20년 전 건축 관련 일을 했을 때 직접 지었다"고 웃었다. 젊은 시절 대전에서 일하다가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온 상원 씨는 4년 전부터 감나무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 깨, 콩, 고추 등을 농사짓고 있지만, 시골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감이다.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지나고 나서 감을 따는데, 너무 익어서 무르기 전에 수확부터 껍질 깎기까지 마쳐야 한다.

처음 만났을 때 두레감을 깎고 있었던 상원 씨는 "대봉감은 이제 막 따기 시작해서 주말 내내 계속 수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레감은 거의 다 깎았어요. 아직 말리고 있긴 한데 제일 먼저 깎은 것 하나 먹어 보니 벌써 말랑하고 달달하더라고요. 반면 대봉감은 열매가 크고 두꺼워서 최소

40일은 말려야 해요."

상원 씨는 "큰 것은 연시로 만들면 맛있고, 작은 것은 바삭 말려서 꽃감으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다"고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상원 씨만의 감나무 재배법도 찾았다. 바로 감나무에 한약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를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름에 비해 냄새가 덜 나는 대신 나무는 더 튼튼해지고 감의 당도도 오른다. 또 기본적으로 너무 오래 되어 소위 '고목감나무'라고 불리는 감나무들은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 꽃감용 감을 수확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상원 씨는 오래된 감나무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당도 높은 감을 얻기 위해 가지나 순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감이든 뭐든 농사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손도 많이 가고,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해의 기온이나 여러 요소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조금씩 크는 걸 지켜보는 재미로 살아요."

성장의 기쁨을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상원 씨의 바람은 매해 잘 자라는 감 만큼이나 가족들도 잘 사는 것이다.





2024년 고산권벼두레 햅쌀밥잔치

김드보라씨 냄비밥짓기 우승!



냄비밥짓기 대회 우승은 '벼두레 여신'으로 참가한 김드보라 씨에게 돌아갔다. 김 씨는 "진행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민감한 후각과 섬세한 불 조절이 우승의 비결"이라며 "저렴한 양은 냄비로 이룬 승리라 더욱 값지다"고 말했다.

2024년 고산권벼두레 햅쌀밥잔치가 9일 오전 11시부터 고산미소시장 광장에서 열렸다. 고산권벼농사두레(이하 벼두레)가 올해 농사지은 쌀의 도정을 마친 뒤 가진 행사다.

냄비밥짓기는 잔치의 서막. 참가자들은 돌솥, 무쇠솥, 캠핑용 냄비 등 다양한 냄비를 선보이며 벼두레가 준비한 햅쌀로 밥을 지어 맛을 겨뤘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품평회단은 "같은 쌀로 지었는데 다 다른 맛이 나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친환경쌀로 만든 삼산도가 막걸리세트가 우승 상품으로 주어졌다.

이날 벼두레는 식사나눔, 퀴즈쇼, 쌀가마니 천하장사 선발대회, 추억의 골목놀이, 사진전, 친환경쌀 판매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식사나눔은 벼두레가 준비한 햅쌀밥과 김, 무생채, 어묵탕, 떡볶이에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반찬이나 먹을거리가 더해져 더욱 풍성해졌다.

양나경 벼두레 회장은 "벼농사와 쌀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벼두레의 친환경 쌀도 홍보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같은쌀로 지은 밥맛이 이렇게 다를수가



저렴한 양은냄비로 이룬 값진 승리
우승자 김드보라 씨

천하장사 선발대회
우리가 승자!!



영화감상동아리 GO씨네, 두 번째 ‘무박 2일’ 별밤극장

영화와 친구가 있으니 즐겁지 아니한가?



제2회 고씨네 소소한 별밤극장(이하 별밤극장)이 1일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완주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무박 2일 상영회’를 표방한 별밤극장은 미디어센터 영화감상동아리 GO씨네가 기획하고 운영했다. 센터 옥상에서 야외 상영으로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내 상영관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GO씨네 김진아 씨는 “영화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GO씨네 회원들은 미리 와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과자와 음료를 챙기고 의견수렴을 위해 홍미진 씨와 김진아 씨가 손수 꾸민 보드도 이젤에 올려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임상수 씨와 김애란 씨는 챙겨 온 버너와 들통의 자리를 잡고 물 끓일 준비를 했다. 두 사람은 상영회 중간에 있는 옥상 라면타임의 지원을 맡았다. 김애란 씨는 “라면 국물에 말아 먹을 수 있게 찬밥과 김치도 조금 가져 왔다”고 말했다.

일찍 온 주민들은 장식 풍선과 조명으로 반짝이는 상영관 로비에서 즉석카메라와 분장 아이템을 이용해 인증샷을 찍고 놀았다. 상영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상영관의 빈 좌석이 빠르게 줄어들었다. 종일 비가 왔고 별밤은 애초에 물 건너갔지만 실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가벼운 기대와 흥분이 저녁 시간을 물들였다.

저녁 6시 55분쯤 되자 이날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홍미진 씨가 GO씨네와 별밤극장에 관해 짧게 소개했다. 인사말 같은 의견은 생략했다. 이윽고 7시. 상영관의 불이 꺼지고 첫 영화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대화를 끊고 관객 모드로 들어갔다.

별밤극장은 올해 주목받은 두 편의 장편을 포함해 총 여섯 편의 영화를 준비했는데 옥상 라면타임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1부에서는 박정미 감독의 다큐멘터리 <담요를 입은 사람, 116’>과 지역의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한 단편 <사라지지 않은 것들(김누리 조영빈, 15’)>을 상영했다. 두 편의 상영이 끝난 뒤 장미정 씨의 진행으로 감상을 나눴다. 그렇게 1부가 마무리됐다.

저녁 10시 40분, 중간 라면타임 이후 2부가 시작됐다. 들성들성 빈자리가 눈에 띄었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주민들이 귀가하면서 생긴 자리였다. 뒤늦게 온 몇몇 주민이 빈자리를 채웠다. ‘파이팅’ 남은 주민들은 새벽 상영까지 완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장손(오정민, 121’)>, <산나물 처녀(김초희, 29’)>, <화성 이주계획(이용선, 12’)> <더 네이버스 윈도우(마샬 커리, 20’)> 등 네 편의 영화가 2시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중간중간 영화 퀴즈를 풀며 졸음을 쫓았다.

홍미진 씨는 “재미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두 번째 가을밤을 맞이했다. 밤을 새우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는 나이이지만 그래도 ‘영화’와 ‘친구’ 두 가지만으로도 지나칠 수 없는 조합이다. 내년 가을날에는 어떤 이야기로 밤을 지새울까 기대된다”고 했다. GO씨네 조미정 씨는 “재미만 추구하는 상업영화가 아닌 다양한 시선의 영화를 보며 밤을 새보는 경험은 특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내 안에 있는 영화평론가의 어깨가 으쓱하니 즐겁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디어센터 영화감상동아리 GO씨네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별밤극장. 올해로 2회째를 맞았으며 ‘무박 2일 상영회’를 표방한다.

제6회 어울링더울링한마당

완주공동체, 사람과 사람을 잇다

‘제6회 어울링더울링 한마당’ 행사가 지난 9일 완주군청 어울림 잔디광장에서 펼쳐졌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완주군 공동체’를 주제로 지역 내 30여 개의 공동체 및 4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 설거지바 만들기, 민화 에코백, 천연삼푸 만들기 등 17개의 체험과 전시부터 난타, 하모니카, 어린이 방송댄스 등 12개 공동체의 문화공연까지 재밌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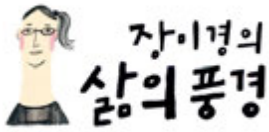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버블쇼, 주사위를 던져라, 떡메치기 등 이벤트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즐거움을 주며, 명랑운동회를 개최해 공동체 회원이 함께 어울려 뛰놀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제6회 어울링더울링 한마당 행사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봉동 명탄마을 박정애 이야기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명탄마을에는 자연하천이 흐르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이를 독보또랑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어른도 뛰어넘기 어려운 너비였지만 지금은 경지정리로 폭이 좁아져 논 사이를 자세히 살펴야 찾을 수 있다. 예전의 마을 사이를 흐르던 거미줄 같은 물길은 시멘트로 덮여 대부분 사라졌지만 독보또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2025년 삼봉2지구 건설예정 된 구간 옆으로 수백년간 지역의 식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되던 독보또랑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삼봉2지구 건설 시 이 공간을 고려하여 금개구리의 거주지 독보또랑이 보존되고, 사라지는 마을들이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사진문화제에 함께해 주세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완주문화장날@ 프로그램 ‘독보또랑’ 팀이 기획한 ‘삼봉2지구 곁, 독보또랑 금개구리의 노래’ 사진문화제’

10월 17일 독보또랑과 자연생태계에 관심있는 이들이 명탄마을 정자에 모여 만들어낸 문화제를 알리기 위한 문구다. 사라지는 마을들이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 궁금해졌다.

이 문화제를 사람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우현주(느림)씨를 만나 명탄마을의 옛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어르신을 소개해달라 청했다.

차 한 대도 지나가기 힘든 좁은 마을길을 지나 박정애(86세)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 오후의 쏘순 가을빛이 할머니 마당에 한가득이다. 그 빛 아래에 고추, 메주콩도 꼬습게 말라가고 있다. 텃밭에는 속이 들어차고 있는 배추와 무도 한가득이다. 옛집이지만 조금씩 손보며 정갈하게 쓸고 닦았을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깨끗하다. 그 앞에 당당하게 선 박정애할머니가 나를 반긴다. 18살에 삼례 장포리에서 이곳으로 시집왔던 새색시는 명탄마을의 큰 어르신이 되었다. 함께 고생한 시절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쓸쓸하던 차에 자꾸 젊은이들이 찾아와 독보또랑이야기 해달라, 금개구리 이야기 해달라 청하는데도 귀찮지 않다. 몇 달 전 여름, 할머니 집 뒤쪽 둥구나무에 파랑새가 찾아와 등지를 틀고 새끼를 낳았는데 카메라 든 젊은이



독보또랑에서
울어대던
금개구리를 기억하기 위해



왼쪽페이지_명탄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집(사진_고산고등학교 육재영 촬영), 애뜻한 생강저울을 바라보는 정애 할머니, 할머니의 오래된 살림살이들, 마을 여자들과 그릇계를 들어 장만한 찬장.



얼마전 피랑새가 날아왔던 나무 아래로 독보또랑이 흐르고 있다 독보또랑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독보또랑 정비 중

(사진: 원주문화도시지원센터 제공)

우리가 찾아와 이것저것 물으니 마을 주민으로서 왠지 뿌듯하셨던 모양이다. 명탄마을의 기억해설사 정애할머니 뒤를 졸졸 따라갔다.

“나 시집왔을 때 저 나무가 작았어. 이 지팡이만한 것을 끊어다가 여기다 옮겨다 심어놨는데 가상이 논자리다 보니까 거름 때문에 빨리 크더라고. 이 나무가 우리 마을 당산나무야. 괴목이야. 정월 보름날이면 여기서 당산제를 지냈어. 바위를 깨끗이 청소해서 거기다 시루를 해다 놓고 동네 사람들은 죄다 목욕재계하고 짝 나와서 저 앞에서 풍장치고 그랬던 곳이야. 그때만 해도 동네에 사람 참 많았어. 여기를 당산이라고 부르고 사람들 풍장 치던 이 논을 바우배미라고 했어. 일하러 오는 사람들 만나는 장소여, 여그가. 자나를 따라와. 이제 또랑을 보러 가야지.”

큰 변화 없이 예전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풍경 덕에 정애 할머니의 기억도 곳곳에 생생하게 각인되었다. 집안일에 소홀한 남편이 원망스러워 호미질을 하다가 목청껏 울어 짓히던 저그 저 밭. 코빼기 신에 몇천원을 숨겨두고 언제든 도망가려고 바라봤던 그 마을 길. 폭폭한 마음에 버스정거장으로 향하던 그 길에 만난 동네 아집의 목소리. ‘아서, 삼레떡. 어서 집에가. 새끼들 어찌려고 그래’ 사남매 생각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길들이 여전하다. 그 삶과 함께 독보또랑도 여전히 흐른다.

“이 또랑이 독보또랑이야.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 물로 다 농사를 지어먹었지. 지금보다 넓고 물이 참 좋았어. 어르신들 말

로 이 동네에 쌀 도둑이든 소도둑이든 도둑질을 하려다가 다 놓고 갔다야. 마을에 어찌나 또랑이 많은가 몇 개를 건너다가 더 이상 못 가고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갔다드만. 그 정도로 거미줄처럼 또랑이 많았어. 금개구리만 있었간디. 저그 모종 있는데 또랑에서 참게가 얼마나 많은가, 밤에 벼꿈(거품)을 부글부글 내놓으면서 나와. 길 가상이 다 까맣게 될 정도로 많았어. 그걸 잡아다가 양념해서 담궈 먹으면 참 맛나. 민물새우도 엄청 많았어. 옛날에는 콩보리밥을 해서 먹었는데 그것은 잘 안 익으니까 세 번은 불을 때야 밥이 익었거든. 한 번 불 때놓는 동안 또랑 나가서 소쿠리로 물질하면 빨간 민물새우가 한가득이야. 그놈을 멍석에 넣어 말려서 무수 넣고 지져먹으면 참 맛나. 또 물쭉이라고 들어봤어? 논두렁에 4~5월에 나는데 줄기가 빨개. 그것을 캐다가 삶아서 말린 놈을 고추장 단지에 박아놔. 나중에 그것을 꺼내 먹으면 고기보다 맛나. 요즘 사람은 다 모르는 것들이지. 풀도 사라지고 참게, 민물새우도 사라지고 없어.”

또랑에서 울던 금개구리도 언제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정애 할머니는 남아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전한다. 자신이 살아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자연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목소리는 마을의 변화를 기록하고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동네 여자들도 껍이나 고생을 많이 했어.

시양(생강)장사를 많이 하러 다녔지. 시양 팔러 광주, 여수, 부안, 논산, 남원, 안 당긴데 없이 다녔어. 여수로 제일 많이 다녔어. 이 동네 여자들이 그렇게 새끼들 다 가르쳤지. 나는 세 살 먹은 셋째딸 업고 시양 팔러 다녔어. 가을에 날이 춥잖아. 그렇게로 아기가 설사가 나서 똥치우다 하나도 못 판 날도 있었지. 박정희 대통령 죽던 날에도 광주에서 시양 팔던 것이 생각나네. 그 시절에는 인심이 좋아서 시양팔다가 해지면 서로 재워주고 그랬어. 그럼 고맙다고 다음 날 아침에 집주인한테 바가지 가져오라고 해서 거그다 시양을 한가득 주고 오는 거야. 봉동생강이 참 귀하고 비쌌어. 그래서 일부러 생강 얻어먹으려고 서로 재워주려는 집도 있었지. 그럭저럭 십년 넘게 생강장수 하다보니 한세월 지났네.”

박정애 할머니의 창고에는 요강, 엇가리, 빨래방망이, 벗짚 썰던 작두, 똥바가지 같은 옛물건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낡은 살림살이들을 보면 추억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매정하게 버릴 수 없다고 한다. 할머니가 가장 애뜻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강저울이다.

“내가 이 생강저울을 안 버리고 계속 놔둔 이유는 이 놈으로 돈 벌어서 우리 새끼들 가르쳤을 게. 이것을 서울 사는 아들한테 주려고. 나 죽어도 이 저울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물건은 나한테 참 자랑스러운 물건이니까.”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의 문화예술인들

03

여기, 마음의 허기를 채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소개한다.

한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다.
문화와 예술이 없는 삶은 삭막할 것이다.

조소작가 이창훈 씨

갈라진 돌에서
고정관념, 결핍과 고난을 찾다


조소는 깎는 조각과 붙이는 소조를 포괄하는 미술 장르다. 이창훈 씨는 조소 작가다. 그의 작업 재료는 돌이다.

“대학교 2학년 테라코타 수업시간에 흙 판을 만들어서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작업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수업 주제가 시를 표현해보는 것이었어요. 저는 시 대신 김윤아의 노래 ‘야상곡’을 선택했는데 그 가사를 스케치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말라서 갈라진 바닥에 꽃이 있는 이미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때 갈라지는 흙 모양에서 선과 면을 보았고 그 정적인 느낌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4학년이 된 이창훈 작가는 졸업 작품을 고민하다 2학년 때의

경험을 떠올렸고 당시 작업을 재해석해보기로 하는데 돌이 깨질 때의 형태가 흙이 갈라지는 모양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때부터 돌과 그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가 처음 갈라진 돌에서 본 건 ‘고정관념’이었다. 지금은 ‘결핍과 고난’을 보고 있다. 때때로 예술가로서 잘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잘 견뎌내고 있다.

그는 2016년 첫 개인전 ‘틈’ 이후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전북대학교 미술대학 조소전공 동문 3명과 함께 완주에서 공방 ‘날맹이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날맹이는 전라도 방언으로 산봉우리다. 

어떻게 전업작가가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선생님이 그걸 알고 일반 미술학원이 아닌 조소 학원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때 조소를 알게 되었죠. 대학 전공도 조소를 택했는데 당시만 해도 직업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택했고 먹고 사는 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니다. 그랬는데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치면서 이 작업활동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오는 보람이나 성취감이 대단했죠. 그래서 전업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죠

처음에는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갈라진 땅의 모습과 차가운 철들이 마치 우리의 현실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에서 생겨난 관념과 관습이 고정관념이 된다는 생각을 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한 노력을 갈라진 돌에 빗대 작품화했죠. 근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뭄이 왔을 때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가뭄과 메마름의 이야기로 메시지를 다시 구성해보자고 생각했죠. 지금은 갈라짐이라는 형태 안에서 빈곤, 결핍,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업에는 주로 어떤 돌을 씁니까

첫 개인전 때는 화강암의 일종인 마천석을 썼어요. 오석이라는 까만 돌이 있는데 입자가 곱고 때리면 유리처럼 맑고 얇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좀 비싸요. 마천석은 그 대체품이었던 거죠.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이는데 오석만큼이나 까맣고 입자

가 고급스러운 돌입니다. 지금은 대리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은 조금 더 비싸지만 경도가 화강암에 비해 낮아서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돌을 가공하면서 몸이 받는 충격도 덜하고요.

가공하다 돌이 제멋대로 깨지면 어떻게 하죠

저는 재료 고유의 성질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스케치 없이 돌을 깨서 작업하곤 합니다. 그래서 돌을 깬데 스케치한 것과 다른 금이나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접착제로 다시 붙여 활용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우연성을 가미한 작업도 많이 있습니다.

작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금속 조각이나 흙 작업, 목 조각 등 분야마다 그 과정이 세밀하게는 다르지만 대부분 에스키스라는 스케치를 먼저 해요. 이후 실험적인 작품이나 처음 하는 작업일 때는 기법에 대한 실험을 좀 하고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해왔던 작업은 실험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에스키스 스케치하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죠. 작업 전 실험은 재료의 물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품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본 작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에스키스라고 하면 보통 스케치를 이야기하는 데 조소는 소품을 만드는 과정도 에스키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평면적인 에스키스, 재료 물성 실험, 입체 에스키스, 본 작업 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마음 가는 작품이 있습니까

최근에 했던 작업이 마음에 들어요. 4회 개인전 '인류한기'를 교동미술관에서 열었는데 공연 예술인들이 그 작품을 창작극으로 해석했어. 저는 그 공연 영상 이랑 이야기를 다시 전시장으로 끌어와 '새로 고침: 여생'이라는 5회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 작업이 전체적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색다른 시도가 좋았고 그만큼 성취감과 보람도 컸던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도 있었겠죠

4회 개인전 전에 회의감이 강하게 왔어요.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제가 생계를 위해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기획자가 되고 보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활동하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게 과연 남들에게 예술로 불릴만한 활동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 거죠. 취미생인지, 예술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4회 전시를 하고 그걸 다른 예술가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주고, 저는 또 그걸 받아서 5회 전시로 잇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 작품을 예술로 바라보고 있구나하는 생각과 성취감이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요.

어떨 때 자신이 예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작품 하나 끝났을 때나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멋진 걸 만들어 낼 때, 그리고 그게 전시가 될 때 그 순간순간 예술인으로서의 자각과 성취감을 느껴요. 무엇보다 내 작품을 찾아주는 기획자가 있을 때, 즉 전시에 초대받을 때 확실히 내가 예술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끝으로 한 말씀

미술 시장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작업하는 예술인이 있고, 작품을 보러 와주시는 관객이 계시잖아요. 저도 좋은 작품, 좋은 전시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돈 걱정 덜 하며 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문화기획자로서 저의 목표입니다. 예술가로, 또 기획자로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류한기_유(類) 260 180mm 대리석 2022
 인류한기_비(碑) 200 60 810mm 대리석, 오석 2022
 작업 중인 이창훈 작가

본 지면은 완주문화재단의 '완주예술발굴·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꿈의무용단 in 완주 활동소식

우리는 "꿈의 무용단 in 완주 2기"입니다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예술로 충전' 축제 무대에 선 꿈의 '무용단 in 완주' 단원들.

글쓴이 : **윤혜진**(꿈의 무용단 연출)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지나 비가 무르익는 가을이 오듯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꿈의 무용단 in 완주' 단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복합문화지구 누에의 가족문화교육원 연습실에서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서로가 만나 몸으로, 춤으로, 눈빛으로 소통하며 춤의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춤의 테크닉을 배우기보다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나를 표현하고 움직임을 만들어가며 '나 다움', '우리 다움'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단원뿐만이 아닌 완주군 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춤의 세계를 함께 나누며 배우는 주민공유워크숍 "Shall We Dance?"로 다양한 주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완주의 꿈의무용단 단원으로서의 자부심도 키웠습니다.





완주의 다양한 지역축제에 참여하다

꿈의 무용단 단원들은 수업 활동뿐만이 아닌 대외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 춤의 세계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 개막 축하공연을 발관삼아 올해는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예술로 충전” 축제와 완주군 주최의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하며 완주의 꿈의 무용단을 소개하며 다양한 관객들 앞에서의 무대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의 작품은?

누에의 꿈

날개를 펼치다

올해 꿈의무용단이 준비한 작품은?

우리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꾸는 꿈과 희망과 바람의 꿈을 각자의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합니다. 누에가 나비를 꿈 꾸듯이 우리의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각자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각자의 움직임, 춤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꿈꾸다.

‘꿈’은 밤마다 꾸는 꿈의 세상과 마음 속 간절히 바라는 꿈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기도 하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 도망을 가기도 하며 길을 잃고 헤매는 경험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감정뿐만이 아닌 아찔하고 슬픈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꿈꾸는 세상과 현실 속 꿈꾸는 세상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꿈의 무용단 2기 수업활동

2기 단원, 무대에 오르다

꿈의무용단 수업 과정에서 나의 몸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내 몸을 다루어가며 나의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편해지고 자신감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더 커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단원들마다 색깔이 담긴 춤이 무르익은 작품 <누에의 꿈, 날개를 펼치다>가 곧 관객들을 만납니다.

11월23일 토요일 오후3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는 동안 구슬땀을 흘려가며 완성한 단원들의 날개짓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완주문화재단 예술진흥팀 063-262-3955 / 꿈의 무용단 010-8705-0885)

꿈의 무용단 in 완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 20개 기관을 선정하여 5년간 연속지원을 통해 2028년에는 완주군에서의 아동·청소년 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완주문화재단이 선정되어 2023년부터 황미숙 무용감독과 5년간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며 지역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미용피부화장품과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염색과 파마 등의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 수해입은 운주면서 사회봉사활동

“가진 재능으로 돕는 일은 늘 행복하죠”



봉사단장 김자욱 교수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운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원광보건대학교 학생들이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 첫날인 25일 금요일 이른 오전부터 운주면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강당 안에는 과마다 부스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이날은 미용피부화장품과, 주얼리디자인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운영을 담당하는 학생이 1층부터 어르신을 부축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했고, 관련 학과 학생에게 어르신을 인계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외에도 운주면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인 것은 학생들의 ‘진심’이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고, 살갑게 말을 붙이는 학생들의 모습에 어르신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안희인(88) 어르신은 “집 근처에 아는 미용실이 두 군데나 있지만 학생들이 해준다고 하길래 와봤다. 모두 친절하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재능나눔을 통해 따뜻한 정을 느끼는 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2학년 성민진(23) 학생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건강 관리 방법을 설명해드릴 수 있어 보람찼다. 어르신들이 손녀딸처럼 대해주셔서 기뻐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년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해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봉사단장을 맡은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김자욱 교수를 필두로

9개의 학과(미용피부화장품, 주얼리디자인, 간호학, 임상병리, 물리치료, 안경광학, 치기공, 식품영양, 전투부사관), 모두 1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년째 이어지는 농촌재능나눔 사회봉사는 원광보건대 학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실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습득하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도 느끼게 된다. 봉사단장 김자욱 교수는 이러한 사회봉사 속 ‘서비스 러닝’과 ‘리빙랩’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보건 계열 학생들이 농촌에서 직접 어르신들을 응대해서 느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책으로만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률이 높다고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정말 낙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구나.’라는 경험을 쌓는 게 나중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은 양분이 되는 거죠.”

학생이라는 거대한 인적 자원을 가진 지방 거점 대학들이 농촌과의 교류를 통해 희미해지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안점이다.

“사회봉사 대상 지역으로 운주면을 적극 추천한 완주군마을통합마케팅지원단 덕분에 이번 활동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설명한 김자욱 교수는 “앞으로도 활발한 민·관·사학 협력을 통해 실용적이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에 참여한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원들이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질문이 있는 이달의 그림책

키워드 -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할까

요리후지 분페이 기무라 슌스케 씀, 서하나 옮김, 안그라픽스, 224쪽, 2018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진로와 직업은 엄연히 다른 말임에도 우리는 곧잘 두 단어를 혼동하거나 혼재하여 쓴다. “꿈이 뭐야?”라는 질문도 대답하는 사람은 어느새 “내가 하고 싶은(혹은 점수에 맞춰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야?”라고 받아들여 알아서 대답한다. 그렇지만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고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할까?”라고 말이다. 적어도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까?” 정도라도. 그 과정을 돕는 활동이 ‘진로수업’이라고 생각한다.

11월 중순이면 대한민국 학생들 중 반절 이상은 ‘인생이 걸린’ 시험을 치른다.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꼭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은 남들이 하는 적당한 과정을 어렵게 치러낸다.

일본의 디자이너 ‘요리후지 분페이’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디자이너가 아닌 ‘디자인 하는 사람’의 관점이 담긴 책이다. 단순히 어떤 분야에 특출하거나 남들보다 잘해서 선택한 기능적 직업이 아닌, 자신이 틈만 나면,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평생 이어온 이의 ‘인생 경로’다. 어렵지 않은 글들로 대화하듯 읽어 나갈 수 있으니 한 번쯤 책을 펼쳐보면 자신만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인생 경로를 살피는 일에 나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 고3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길이나 앞으로의 여정에 골몰해 있는 누구나 분페이의 이야기를 펼쳐보면 좋겠다.

림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65 나와 다른 길을 가는 너와



설레는 완주에 온지 11년차 청년이다. 그림그리고 디자인한다.

혼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기는, 삼례 흥스테이

완주 DMO의 체류형 여행 활성화 **완주 DMO X 워케이션**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Worcation)은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이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서 직장 근로자가 새로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 업무 공간 등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 외에는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12월까지 완주군에서 진행되는 워케이션은 1회당 2박 3일 일정으로 삼례읍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2024 특별한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까지 첫 출발에 삼례 '흥스테이'가 함께했다.

△ 맛과 함께 떠나는 청춘 게스트하우스

삼례문화예술촌, 삼례역 등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근접한 '흥스테이'는 2021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된 청춘 게스트 하우스다. 여행자들을 위한 4개의 개인실과 공용거실, 다이닝룸 등 이용할 수 있는 플레이룸은 개인공간 뿐만 아닌 전체 대관 시스템으로 대가족 단위, 단체 친목 등 여러 유형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흥스테이 워케이션 참여자들은 머무는 2박 3일 동안 만경강 산책부터 완주 술 시음회 더불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야외 천막과 바베큐장, 실내에서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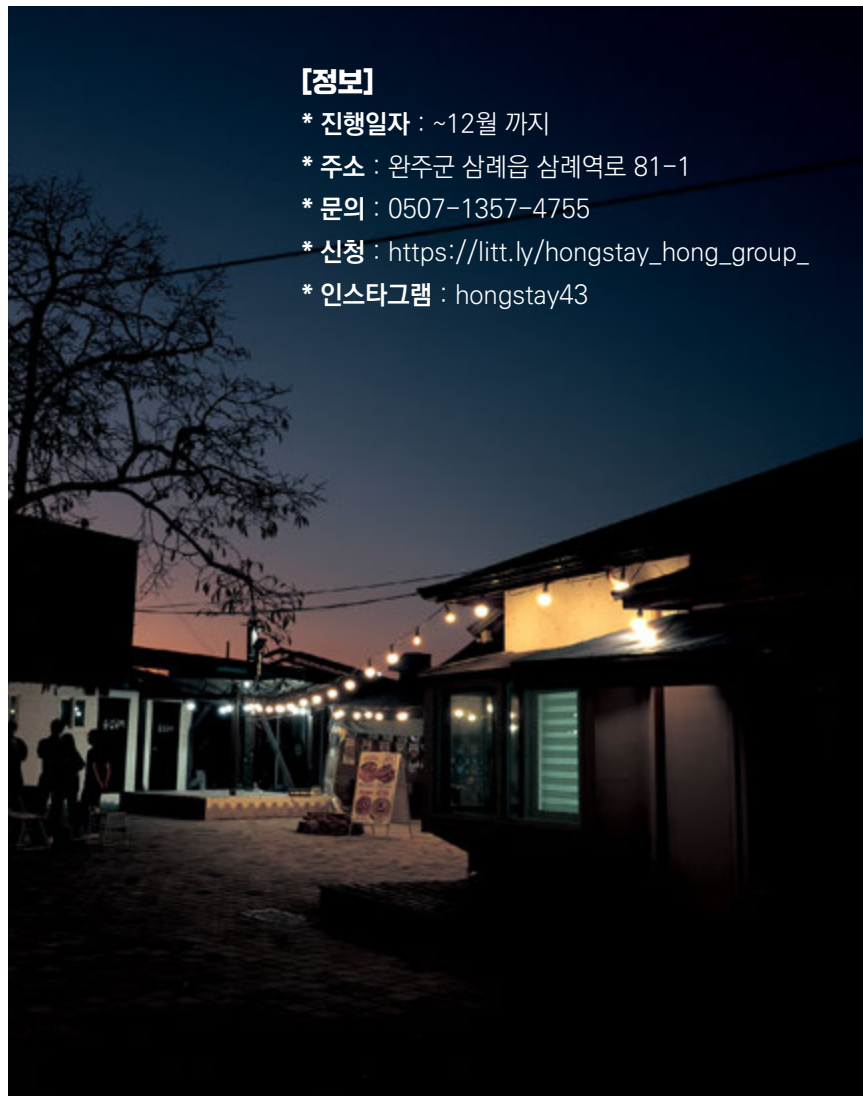


공간지기의 한마디
홍유진(흥스테이 대표)

“기차역과 아주 가깝게 자리한 흥스테이에서 아늑한 편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은 물론 단체도 이용하기 좋아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무국적 요리의 홍식당을 바로 옆에서 운영하고 있어 숙박과 동시에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도시 완주에서 힐링하고 편안하게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정보]

- * 진행일자 : ~12월 까지
- * 주소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1-1
- * 문의 : 0507-1357-4755
- * 신청 : https://litt.ly/hongstay_hong_group_
- * 인스타그램 : hongstay43



[Tip]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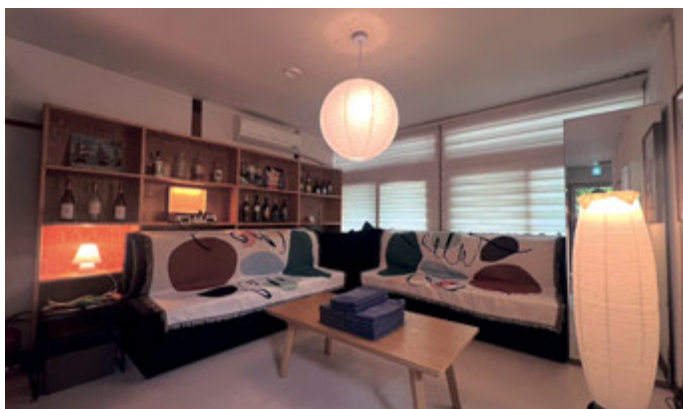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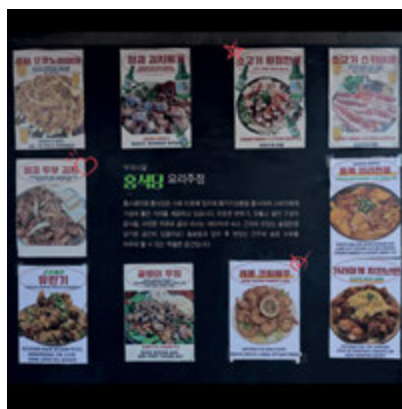
- * 워케이션을 꿈꾸는 기업, 개인, 혹은 팀
 - 팀별 최소 1인 이상 최대 4인 이하 (객실 배정에 따라 인원변동 가능)
- * 무리한 사무실을 벗어나 일하고 싶은 사람
- * 개인 및 기업에 맞는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 협의 가능

[Tip] 선택 가능한 무료 체험

- 완주 술 주류 시음회
- 만경강 런데이 투어
- * 클래스별 투숙 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가능 인원 및 체험비 별도 문의
- * 세부 프로그램은 맞춤 가능



홍스테이 워케이션 참여자들이 완주 술 주류 시음회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완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완주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어 '2023년 우수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 및 성과 워크숍'에서 우수 DMO로 선정돼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받았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체계를 통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조직 체계이다. 이에 완주문화재단은 문화, 교육 분야 등의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지역 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완주군관광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완주군 전역이 매력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완주형 워케이션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협한 여행성지 개발 △완주관광플랫폼 공간조성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상감 공예가 김동헌 네 번째 개인전 <눈물>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김동헌 작가의 네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눈물’을 주제로 한 김동헌 작가의 개인전은 다양한 목공예 작품을 통해 평범한 민초의 삶 속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자칫하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추상적인 요소의 조형물 위주로 가볍게 심미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0년도부터 고산면에서 목공방 ‘봄’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헌 작가는 완주 지역 학생들과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공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동헌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1년간 여러 시도와 고심 끝에 준비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나무가 품고 있는 형상과 상처를 가지고 추상적인 조각작품들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시정보]

- 전시일정_ 2024. 11. 28.(목)~12. 8.(일)
10:00~18:00 (월 휴관)
- 전시장소_ 서울 종로구 율곡로 3길 74-9 도립미술관 서울 분관
- 문의_ 02-720-4354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겹재,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원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멀리 떠나는 길 위에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1) 안수련의 [먼길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 본다]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2007년 국립창극단 국가브랜드로 만들어진 '우리시대의 창극' [칭]에 삽입된 곡입니다. 이 공연에는 '동초 탄신 100주년 기념공연' '청소년공연 예술제 개막공연' 등의 거창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 거창함만큼이나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화려한 무대와 역동적인 연출을 통해 창극의 가능성과 관소리의 현대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수작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1막과 2막 마지막 부분을 해금연주로 마무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보통 창극이라면 좀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봉사 눈뜨는 대목 뒤에 이어지는 황성찬치의 떠들썩함으로 끝맺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절정을 피하고 차분한 에필로그를 부록처럼 제시하며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눈을 뜬 심봉사와 심청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그 배경음악으로 이 곡이 흐릅니다.

1막 마지막에서도 인당수에 빠지는 걱정적 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를 맞으며 심청이 어딘가로 향해 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대목에서도 이 곡이 연주 형태를 달리하여 배경음악으로 등장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매우 전략적인 연출로 여겨집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심봉사나 심청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이 두 마지막 장면은 특히

해금의 가슴 저린 연주 덕에 더욱 우리들 마음에 또렷이 남을 것입니다. 1막 마지막 부분은 [저 멀리 흰 구름 자욱한 곳], 2막은 [먼길 떠나는 사람은 뒤돌아본다]로 끝납니다. 같은 곡인데 1막에서는 해금을 신디가 감싸주고 2막에서는 해금이 더블베이스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곡 모두 해금 연주는 안수련이 맡고 있는데 그의 2004년 앨범 [수련 I]에 실려 있는 첫 번째 곡 [삶, 소유]에서 뒷 부분을 생략하고 앞 부분만을 취해 독립시킨 것입니다.

창극 [칭]에는 많은 길이 등장합니다. 꼭씨부인 상여 나가는 길, 심봉사와 심청이 밥 빌러 가는 길,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저 세상으로 가는 길, 맹인들 황성찬치 찾아가는 길, 심봉사가 눈을 뜨고 딸 심청과 함께 도화동 찾아나서는 길 등,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인생살이를 나그네 길이라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일까?

해금을 맡은 안수련은 해금연구회 악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수년, 강은일, 김애라 등과 더불어 해금의 연주 영역을 한껏 넓혀가고 있는 촉망 받는 연주자입니다.

길은 언제나 없던 문을 만든다
그리움이나 부끄러움은 아무 데서나 정거장의
뜻말을 세우고
다시 펴보는 지도, 지도에는 사람이 표시되어 있
지 않다

가지 않은 길을 잊어버리자
사람이 가지 않은 한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의 속력은 오직 사람의 속력이다
줄지어 가는 길은 여간해서 기쁘지 않다
- 이문제의 [길에 관한 독서] 부분

은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문을 향합니다. 몸 건강을 위해 걷기가 많이 추천되고 많은 이들이 열심이지만 걷는 길은 결국 우리들 마음의 한 지향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몸부림입니다. 걷기가 마음 치유에도 유용한 것은 낡은 것을 지우고 새로운 전망을 세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여 먼 길을 나설 때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곡 들으시며 길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삶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곡 제목에서 그런 것처럼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법이랍니다. 우리를 인생만큼이나 먼 길이 또 어디 있겠는지요. (동영상은 여행 중에 얻은 길 사진들로 배경을 삼은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이종민 교수와 함께하는 특별한 인문학 강연 열려

완주미래행복센터 완주인문학당에서 이종민 교수가 '영시로 떠나는 영어여행' 인문학 강연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사랑에 빠진 셰익스피어'를 주제로 한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열리는 강연은 앞으로 4회차를 남겨뒀다. 강연은 이 교수의 저서 '불멸의 새와 꽃의 영광을 노래하라'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윌리엄 블레이크, 윌리엄 워즈워스, 예이츠 등의 아름다운 고전 영시들을 음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이종민 교수는 전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다 현재는 고향인 완주군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2024. 11. 7. ~ 12. 5.
- 📍 완주미래행복센터 완주인문학당
- ☎ 010-4133-3211로 문자 접수 문의





[35]

유송이는 전통주를 빚고 즐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기양주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다.

야야. 쌀쌀하니 뭇헐라고 여까지 왔나. 언덕배기 라 바람이 시여. 술 한 잔 올린다고 허믈 느그 할 애비사 좋다고 허졌다. 술이라든 별떡 인나 앉았 겠지. 술 빚는 것은 맘이 신산허믈 못 쓰는 것인 디 술을 빚는다니 니 사는 속이 차분허구나. 글 도 자석들 키우니라 애쓰자? 모 싱구고 논이 시 퍼럴 때 느그 어매 몸 풀었는디 또 딸이어서 내 가 속이 상했더만, 나 타겨서 소가지 사납던 손 녀딸이 어느새 머리가 허여졌구나. 하이고 간시 업보살!

이잉? 누룩을 한 되 썼다고? 거그다 술약도 안 넣고? 하이고 잡상 맞어라. 누룩 그 쪼깨로 어찌케 술이 된다냐? 나 술빚을 적에는 쌀 한 말에 누룩 이 한 말 들어갔지. 절구통에다 누룩 빵구믈 한 다라이여. 고두밥 찌서 식혔다가 누룩허고 버물 버물 비벼 넣고 물만 부스믈 이삼일 지나 술이 부글부글 끓었잖여. 술약 쪼깨 넣으믈 금방 술이 괴야. 열흘 만에도 먹고 일주일 만에도 먹고 그랬지.

하이고 시상으나. 술이 참말로 맛나고 독허다. 색깔이 어찌케 이렇게 곱다냐. 금방 짜낸 참기를 찰랑거리디끼 너랑고 말간허다. 냄시도 참말로 좋다. 요즘 시상이나 된게 참쌀로 술 빚지, 옛날엔 쌀 구경이나 했가니. 노상 무시 시라구 넣은 시커면 보리밥 근근히 먹고 살었지. 오직허믈 순헌 느그 아버지가 한날 큰집 사촌형이 먹는 쌀밥 얘기를 꺼냈다가 내가 밥그릇을 뺏어부렀다. 어린 것을 밥 먹어라 소리도 안허고 쫄쫄 굶겨 재웠어야. 느그 아버지 밑으로 여섯이 줄줄이 입 벌리고 있는디 내 자신이 독살시렵지 않으믈 그 세월을 어찌케 전더냈잖나. 곤궁헌 살림은 느그 어매도 마찬가지로였지. 농사짓는 집으로 시집오믈 밥은 안 굶겼다고 중신애비 헌티 그랬다드만. 참말로 미안했지만 느그 어매 헌티도 독살시렵 게 했다. 대식구 먹성에 쌀독에 바가지 굶는 소리 만날 들려도 못 들은 척 했다.

먹을 쌀도 없는디 술을 어찌케 빚어. 큰집서 쌀 한 말 뛰다가 술빚어서 느그 할아버지 제사 지내

고, 일꾼들 새참 나가고, 남은 거 여꾸다리 정가가 술단지 걸고 쪼주 내려주믈 그놈 팔어다 쌀 값고 그랬어. 요시 시상은 쌀이 혼전만전여. 내사 밥 안 굶는 시상 살아봐서 원은 없어야. 모다 덜 가난헌 시상이었다만 새끼덜 지대로 못 갈쳐 애송바친 것이 한이지.

그렇게 귀헌 쌀로 술을 빚었는디 오죽 맛나졌나. 양조장 술에 비할 바가 아니지. 뭇 지랄 났다고 술을 사 먹게 했는지 몰라. 전쟁 나고는 먹을 쌀이 없으게 허다허다 밀가리로 술을 빚는다는디 볼데기 찢음서 먹으라허도 못 먹졌던 술을 사먹으라니 돈이 썩어났던 개벼. 쌀 뺏아가고, 쇠붙이라든 밥술갈도 뺏어가던 놈들이 술도 못 빚게 을매나 지독시렵게 감시를 허던지. 쇠꼬챙이 든 순사허고 세무서 직원이 술감찰 나오믈 누룩 승

이고 잡상 맞어라. 쌀 한 말이 어디라고 물 두서 말은 넣어야 먹었다 허지. 쌀이 아깝지도 않더냐? 참말로 태평성대 세상이 되었구나. 두 달간 술독에 뇌똥다가 잔다고? 술단지를 두 달이나 놔 둘 새가 어뵈어. 몰래 술을 빚는디 누룩은 승그 기라도 쉽지, 술내 풀풀 나는 술단지를 어찌케 승그졌나. 빨리 빚어서 언능 없애야지. 궁게 누룩도 많이 넣은 거여. 장에 갔더니 술약도 넣는 다 허서 양조장서 쓴다는 술약도 사다 넣게 되었지. 맛이 뭇이라 궁궁허. 누룩내도 많이 나고 맛도 니끼허니 쓰고 시고 그랬어. 술약 쓰믈 술이 후딱 괴기는 허드라만 먹고나믈 머리도 아프다고 그려.

그러도 없이 살던 시절에 그만허믈 호사였지. 모 심고 나락 비는 날에는 술 없으믈 일꾼들 볼 멘 목이 없잖여. 사람들이 맛 좋다고 먹고 힘나서 일해주믈 그게 보람 아니겠냐? 메누리들 헌티 굳이 갈치던 안했어. 나랏님이 허지 말라는 것을 갈쳐감서 헐 필요는 없는 일이지. 우리 오매가 허던 것을 봐와서 나도 무단시 헐던 짓이지. 그렇게 허야만 허는 줄 알고. 근디 시상이 달라진 게 동네 점빵에서도 막걸리를 사먹고, 젊은 사람들은 맥주가 좋다고 마셨잔게. 늙어서 심에 부치기도 헌 일이고.

아마도 니가 시집갈 때 빚은 술이 마지막이었던 갑다. 소가지 사난 가시내 달라는 놈 있을 때 언능 쥐버리라고 내가 닥달허서 서둘러 날 잡았지. 열 평 아파트에 넣고 말고 할 살림살이 준비랄 것도 없었지. 날 맞춰 술이나 빚었으까. 자손이 장성해 출가하는 것 멍키 감사헌 일이 어디 있겠어. 부처님 헌티도 감사허고, 조상님 헌티도 감사허고, 곤한 살림에 키운다고 애쓴 느그 부모 헌티도 감사헌 일이었지. 정성덜여 빚은 술인게 내 감사헌 맘을 표시는 헐렸지.

생을 떠나는 지 벌써 이십 년이 흘렀구나. 삼일 만세 해에 나서 여태 살았으믈 백다섯 살이 될 판이니 생의 기억이 멀고도 아득허다. 일곱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낳은 열일곱이나 되는 손주들을 한 놈도 모지람 없이 내 손길 가게 허니라 하루도 허투루 살아보질 않았으니 그것이 일생 나의 자랑이여. 너희들이 장성해 자식 낳고 키움서도 오래전 할머니를 기억한다니 나라 잃고 전쟁을 지나온 고단헌 내 생이 헐되는 않았구나. 여그 가만히 누웠어도 내 자손들이 무탈허게 잘 살기만을 기원허고 있다. 내 무덤가에 찾아와 니가 빚은 술을 따라주며 옛이야기를 물으니 술향에 취해 오랜 일들이 솟았다 흩어진다. 봄바람 살살 불고 별도 따쉬 술기운이 가물가물 한잠을 물고 오는구나. 이자 고만 말 시켜라. 하이고 간시 업보살!

술향에 실어 보내온 얘기



기고 술단지 승기느라 혼이 나간당게. 걸리믈 돈 물어내고 서에 쥘허가니께 죽기 살기로 승겼지. 귀신 같이들 찾아내야. 지푸락 다발이고, 시렁 위고, 팡이고, 헛간이고 있을만헌 디는 다 쭈시고 뎡겨. 쇠꼬챙이 한 번 쭈실 때마다 오금이 찌릿찌릿 저려서 용케 안 걸려도 다음 날이믈 몸살이 나드랑게. 어느 산동네서 술 감찰이 뜬 거여. 애덜이 벌써 알고 즈그 집에 달음박질쳐서 알렸 겠지. 누룩이고 술단지고 보듬고 사람들이 앞산으로 도망쳤단다. 산으로 도망치믈 잡으러 오진 않았지 허고. 근디 산 중턱에서 이놈들이 미리 죽치고 있더라. 기어 올라오는 동네 사람들을 산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퇴기 몰드끼 잡어댄 거지. 참말로 뭇쓸 시상을 살었다. 밥 굶고 사는 것도 서러운디 포도시 얻은 쌀로 술도 내 맘대로 못 빚어 먹고 살었으니 말여. 하이고 나무간세업 보살!

쌀 한 말로 술 빚는디 물이 반 말 들어갔다고? 하

햅쌀밥잔치

농/촌/별/곡



차 남 호

11월하고도 중순, 산야가 온통 단풍으로 물들었어 야 마땅하거늘. 지금 창밖에 비친 풍경은 여전히 푸른 빛이다. 벽을 타고 오른 담쟁이만 밧그레하게 물이 들었을 뿐. 여느 해 같으면 '마지막 잎새' 까지 다 떨어져 덩굴만 앙상할 시점이다. 이 어인 조화인지.

하지만 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풀린다. 올해는 여름이 늦게까지 이어졌으니 단풍 또한 그만큼 늦어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게지. 추석이 지나도록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됐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다. 단풍이 늦어서가 아니라 기후 변화로 혼란스러워진 자연현상이 심란한 것이다. 계절을 착각해 봄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니 말이다.

입동이 며칠 전이었다. 초겨울에 접어들 시점이지만 아직도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

후위가 걱정만 접어둔다면 그야말로 눈부신 나날이다.

가을걷이는 지난달에 마무리됐다. 아무 쓸모도 없는 가을비가 수시로 내리는 바람에 애를 먹었고, 생각보다 소출이 적었지만 별 탈이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며칠 전에는 첫 방아를 찧었다. 고산 권벼농사두레는 올해도 어김없이 '햅쌀밥잔치'를 벌였다. 지난 주말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집안에 밥상을 차려왔다. 회원들끼리 가을걷이를 자축하며 스스로 지은 쌀로 햅쌀밥 한 끼를 나누는 조촐한 자리였다. 날씨가 쌀쌀해 바깥이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수십 명이 복작거리려 웅색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해선지 올해는 고산 미소시장에 자리를 폈다. 마침 날씨도 화창해 나들이를 나온 주민들도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잔치판이 됐다.

잔치는 '냄비밥 짓기 대회'로 막이 올랐다. 누가 맛있게 밥을 짓는지 겨루는 행사. 8개 팀이 참여해 나름의 '기술'을 발휘했다. 같은 쌀로 지었으니 되고, 무른 식감만 다를 뿐 밥맛은 다르지 않을 텐데도, 심사위원들은 밥 한술로 우열을 가리느라 고심했다. 어쨌거나 스티커 별점 수에 따라 순위는 결정됐다.

그렇게 지은 밥으로 시장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점심을 나눴다. 햅쌀밥이야 반찬 없이도 그 자체로 꿀맛이니 준비팀은 무생채와 어묵국 정도만 준비했다고 한다. 장 보러 나왔다가 어떨결에 밥 한

끼를 나누는 이들이 햅쌀밥 맛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어 '천하장사 선발대회'가 펼쳐졌다. 쌀자루를 어깨에 매고 '스쿼트' 운동을 시작해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경기. 남성부와 여성부로 나뉘어 모두 여남은 명이 참여했고 각각 두어 명이 살아남았다.

'벼두레 퀴즈쇼'가 이어졌다. 벼농사와 쌀을 주제로 하는 'OX퀴즈'. 스무 명 남짓한 사람이 참여한 문제마다 회비가 엇갈리고, 패자부활전을 거쳐 최종승자가 결정됐다.

그렇게 가려진 승자들에게는 벼두레 회원들이 운영하는 '삼산도가'에서 벼두레 쌀로 빚은 막걸리 세트와 쌀 한 자루씩을 상품으로 안겨줬다. 흥겨움이 넘쳐나고 흐뭇한 웃음이 피어나는 잔치판.

어쩌다 보니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이 되어 갈수록 쌀소비가 줄어드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 역대 정권의 농업 무시 정책으로 쌀값마저 폭락세를 멈추지 않아 농민의 탄식은 깊어만 간다. 그에 따른 대응책이랍시고 당국은 벼 경작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후위기가 극한으로 치달아 세계적 식량위기라도 닥치면 어쩌려는지 아찔하기만 하다.

결실의 계절, 이 눈부신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잔치가 끝나고 나면 늘 가슴 한 켠이 막막해지는 건 이 때문이다.

비봉 염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완주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방안 논의

탄소중립 의원 연구단체 4차 연구포럼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6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탄소중립 의원연구단체 4차 연구포럼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탄소중립 의원 연구단체 심부건 대표위원, 이순덕 운영위원장,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 최광호 위원, 권용훈 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장, 엄성복 전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대표, 방선영 기후정의공동체 바오밥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완주군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보고회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은 1부 장남정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방안'에 대한 강연과 2부 김세훈 엠앤에스지속가능연구소 대표이사의 '완주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기본방향 논의' 발표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후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위한 전문가들의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완주군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추진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이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원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행복의 달 11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디지털 디톡스, 보드게임 여행】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심표를 찢고 싶다면, 청춘방앗간에서 준비한 다양한 보드게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 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6일 (토) 오후 2시

【독립영화 '사라지지 않은 것들'】



완주에서 촬영된 독립 단편영화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다. 나아가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마을 주민들도 찾아보자!

진행정보: 11월 30일 (토) 오후 2시

【글쓰기 <읽기 다음 쓰기>】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읽는 일에서 나아가 쓰는 일도 시작해 본다. 꾸준히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는 것처럼 필력도 매일 훈련해야 하는 법.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나누며 꾸준히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9일, 26일 (매주 화) 오후 1시~3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_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라탄 재개 모빌 만들기】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 라탄소재와 고운 자개를 사용해 나만의 모빌을 제작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11월 23일 (토) 오후 2시

모집인원: 10명 (선착순)

참가비: 10,000원

【영어 회화 클래스】

우아한 영국식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 이번 클래스는 참여도를 반영해 정규 연강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6일 (토) 오후 3시

모집인원: 6명 (선착순)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메시지 또는 완충지대 오픈카톡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11월 차가운 바람 속 따뜻한 마음으로 공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공씨네 11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늦가을과 어울리는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 고산 청춘방앗간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들 & GV>가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1월 16일 (토) 오후 2시	스즈메의 문단속	애니메이션	12세 관람가
11월 23일 (토) 오후 2시	아서	모험, 드라마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1월 26일 (화) 오후 7시	땅에 쓰는 시	다큐멘터리	전체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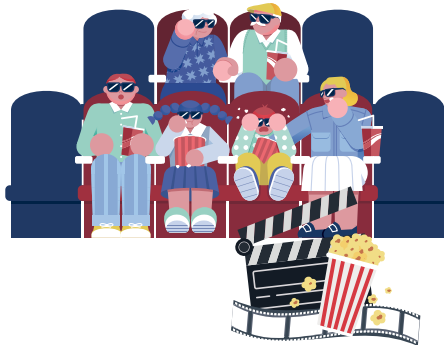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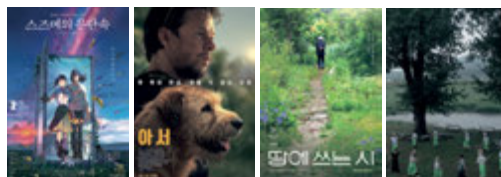
* 우리는 이야기가 듣고싶어서 <청춘방앗간 편>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1월 30일 (토) 오후 2시	사라지지 않은 것들 & GV	극영화	전체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2024 공유스튜디오와 활성화 시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본 교육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공유스튜디오 장비활용 정기교육'의 연장선으로 보다 활발하게 공유스튜디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수업이다. 완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 소상공인 중 홍보물 제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참여하면 된다. 교육진행은 직접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 후 기획단계에서 실제 촬영 편집까지 직접 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 11월 15일 (금) 까지

모집대상: AI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완주군민 8명 선착순 모집

접수방법: QR코드 촬영 또는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홈페이지

문의: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063-905-5050

2025년 상반기 전북 청년 직무인턴 참여자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을 대상으로 기관 및 기업 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무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 혹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도록 하자.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청년

신청방법: jbintern.or.kr 홈페이지 사전교육 이수 후 신청

접수기간: 11월 28일 (목) 오후 6시까지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220-8955

완주군청 근대5종팀 김예나 국가대표 선발



완주군청 근대5종팀 소속 김예나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 선수는 최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2024-25년도 근대5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번 선발전에는 총 23명이 출전해 예선전을 거쳐 상위 18명을 대상으로 결승전이 진행됐다. 이 중 김예나 선수를 포함해 총 7명이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김예나 선수는 올해 1월부터 완주군청 근대5종팀 선수로 합류했으며, 각종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비롯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살린 봉동여성이용소방대 이정란 부대장



사진: 전북소방본부 제공

11월 10일 남편과 함께 전북 완주군 대둔산을 오르던 완주이용소방대 봉동여성이용소방대 소속 이정란 부대장(53·여)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을 사용해 구했다. 이 대원은 등산하던 중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있나요?”라는 외침을 들었다. 응급상황임을 직감한 이 대원이 달려갔더니 50대 남성이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누워있는 상태였다. 그는 대둔산 케이블카 관계자와 번갈아가며 15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케이블카에 구비된 자동 심장충격기를 사용해 환자 의식을 회복했다. 환자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았고,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에서 내려 100m가량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환자가 쓰러진 곳은 높이 780m 지점으로 출동하는 구급대원들도 산 아래쪽에서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지만 접근이 가능한 곳이다. 소방본부는 이 대원의 응급처치가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현재 이상 없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원은 “심폐소생술 전문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대원은 2019년 4월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됐으며, 지난 8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교육을 받은 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심폐소생술 전문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 대원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전시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아 완주군청 1층 로비에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그림 전시회를 열고 있다. 완주군과 세이브더칠드런 전북 아동권리센터(센터장 안소라)가 함께한 이번 전시회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선을 바로잡고 아동도 어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인격체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는 무심코 사용한 어른들의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 상황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40점을 선보이고 있다.

로컬푸드 농부시장 용진 행복장터



용진농협로컬푸드 용진행복장터는 지역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신선한 농산물과 먹을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간식과 재밌는 놀이가 더해지면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5일(금)~16일(토)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 1150 운곡지구 모아이래도 1차 상가 앞



2024 '시꽃 피는 완주 산책'



완주인문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2024 '시꽃 피는 완주 산책'이 11월 19일, 26일 시작된다. 두 시인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한다. 내 마음 속에 저장하고 싶은 시, 나를 움직이는 시, 사연을 함께 듣고 나누고 싶은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11월 19일, 26일 (화) 오후 3시
장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 완주미래행복센터 2층
문의: 010-4133-3211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멋진 클래식 무대가 오는 23일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클래식 오디세이 거장의 발자취 'Ludwig van Beethoven' 로 진행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063-291-378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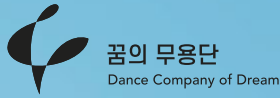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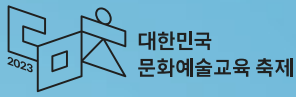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주디 (♀)
검은색 털을 잃은 주디!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약 20kg (체중감량 필요)
나이: 2살 추정
건강상태: 성화 완료, 심장사상충 음성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 복용 중)
주디는 2년 넘게 보호소 생활을 하고 있다. 좁은 견사에서 생활해 활동량이 부족으로 체중이 늘었다. 하지만 산책도 매우 잘하며 단체 생활중에도 사교성이 좋다. 이런 이런 주디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꿈의 무용단
in 완주

완주 꿈의무용단 성과공유 및 결과발표회

누에의 꿈

날개를 펼치다



2024. 11. 23.(토) 오후 3시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꿈의무용단 기록사진전

11.9(토)~11.23(토)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1층 전시실

